

포스코그룹, 장인화 대표이사 회장 취임

“철강·이차전지 소재 사업 정진… 무조건 성공시킬 것”

초격차 비즈니스 등 3色 전략 발표
100억대 ‘스톡그랜트’ 재검토 시사
포항 등 주요 사업장 현장경영 추진

포스코그룹이 장인화 회장 체제를 시작한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신임 회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를 통해 포스코그룹 제10대 대표이사 회장에 정식 선임됐다.

장 회장은 이날 오후 포항에서 취임식을 갖고 포스코그룹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는 한편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방향으로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을 정했다.

그룹의 핵심사업인 철강·이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업황이 부진한 상황을 기회로 삼고 정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현재 철강업은 경기가 좋지 않고, 이차전지소재사업도 신사업이 겪는 ‘캐즘’(시장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초기에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경쟁력을 키워가다보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이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회사의 신사업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기차는 ‘지구의 운명’으로 큰 틀에서는 (성장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기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무조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논란이 됐던 ‘스톡그랜트’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톡그랜트는 일정 기간 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포스코는 경영진에 지나친 성과급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장 회장은 “스톡그랜트는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시작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

해 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주총을 이후 포항 본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개최한다. 장 회장은 특히 이번 포항 방문을 시작으로 100일간 주요 사업장을 돌며 현장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현장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 회장은 포항 본사 직원들 앞에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이라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한다. 또 지역 단체나 시민 등과 만나 포스코와 지역의 상생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전임 최정우 회장 시절에는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본사 위치를 놓고 포항 시민단체들과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이 같은 갈등도 적극적으로 화합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상반기 중 ‘익시’ 출시… AI 기반 B2B 강화”

(자사 AI 서비스)

LG U+ 주주총회

황현식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의결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하여 아쉬움 표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DX) 사업자로 거듭나 기업간거래(B2B)에서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주주총회 직후 변호사동 지원금 ‘전환지원금’과 관련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21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LGU+는 고객 중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며 “전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거세고 빠르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고객경험혁신, 플랫폼 사업 성공은 모두 디지털경험(DX) 역량에 좌우된다는 생각 아래 AI·데이터 기반의 사업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자체 익시(ixi) 브랜드로 개발 중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 초거대 AI 익시젠(ixi-GEN)을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상반기에 자사 AI 서비스 ‘익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 엑시원, 익시 솔루션 등을 붙여서 고객들에 대한 상품·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성을 혁신하고 다른 기업에 상품·서비스화하는 그런 쪽에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대표 승인의 건 ▲정관변경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먼저 황 대표(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의결됐다. 황 사장은 지난 2020년 11월 LG유플러스 대표 취임 후 역대 최저 해지율 기록, 주주환원 강화, AI·플랫폼 등 신사업 전략 구축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연임이 확정됐다.

배당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배당금이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한다. 아울러 김종우 한양대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편, 황 대표는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황 사장은 “전환지원금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국민 통신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네시스, 최상위 트림 ‘G90 블랙’ 출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의 최상위 트림인 ‘제네시스 G90 블랙’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G90 블랙은 제네시스만의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 ‘제네시스 블랙’을 적용한 브랜드 최초 모델이며, 내·외장의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G90 블랙의 판매 가격은 1억 3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의 최상위 트림인 ‘제네시스 G90 블랙’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G90 블랙은 제네시스만의 진정성 있는 블랙 디자인 콘셉트 ‘제네시스 블랙’을 적용한 브랜드 최초 모델이며, 내·외장의 모든 부위를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고급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G90 블랙의 판매 가격은 1억 3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제네시스

한화솔루션, 초고압케이블 시장 개척 속도

XLPE 등 차세대 제품으로 글로벌 공략

한화솔루션이 독자적인 기술력 기반의 초고압케이블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세계적인 전력망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소재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400킬로볼트(kV)급 케이블용 XLPE와 해저케이블용 XLPE 등 차세대 제품들을 앞세워 초고압케이블 소재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XLPE(Cross Linked-Polyethylene)는 폴리에틸렌(PE)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열에 견디는 성능을 향상시킨 고순도 절연 제품이다.

한화솔루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400kV(킬로볼트)급 케이블용 XLPE를 개발해 외국인 제품 대체에 나섰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케이블 업체들로부터 초고압 XLPE 제품 품질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고, 국내 대형 케이블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외 수출용 케이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급성장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한화솔루션이 해저 특수 규격에 맞춰 자체 개발한 해저케이블용 XLPE는 글로벌 케이블 업체의 제품 품질 인증을 거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화솔루션 고압케이블 소재 사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약 61% 증가했다. 오스트리아의 보레알리스, 미국의 다우에 이은 세계 3위의 XLPE 생산 능력(11만톤 규모)을 자랑한다.

한화솔루션은 연 평균 7% 이상 고성장하는 글로벌 초고압케이블용 XLPE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반도체 소재 EBA(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를 포함한 다양한 케이블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재식 한화솔루션 PO사업부장은 “다양한 초고압케이블 제품을 비롯한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로템, K2 전차 폴란드 출고분 적기 도착

18대 도착… 신속한 생산·출고 호평

올해 첫 폴란드 K2 전차 출고분이 현지에서 적기(適期) 도착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12~20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항에 K2 전차 18대가 순차적으로 도착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출고분 56대 중 나머지 38대는 하반기에 출고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요

분 총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2년 10대, 지난해 18대를 보냈다. 이번 출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씩 앞당겨 조기 출고하는 등 신속한 생산·출고 관리로 호평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규 성능 검사 외에도 모든 K2 전차에 대한 추가 진단을 출고할 때까지 반복 시행 중이다. 이미 폴란드에 인도돼 운영 중인 K2 전차에 대한 현지 피드백을 반영한 검사도 함께 이뤄진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K2 전차의 생산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양성운 기자